

라틴아메리카의 생성과 확장

여섯째 마당

Azteca 제국

멕시코 중부고원문화

- 떼오티우아칸(Teotihuacán) 문명
- AD 350년-650년 사이 번성
- 오늘날의 멕시코 시티와 Puebla 분지 사이에 위치
- 해의 피라미드 (Pirámide de sol)와 달의 피라미드 (Pirámide de luna) 건립(멕시코시티 북쪽 40km 위치)
- Teotihuacán: 20만명 이상의 인구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계획도시
- 신정국가
- 제 1계층: 왕족(제사장 겸임)
- 제 2계층: 거대 상인집단
- 제 3계층: 군인
- 제 4계층: 소상인, 공예가 등
- AD 650-700년 사이에 멸망한 것으로 추정(외부의 침략???)



자료출처: commons.wikimedia.org (해의 피라미드)



자료출처: commons.wikimedia.org (달의 피라미드)



자료출처: commons.wikimedia.org (Teotihuacán)

2. 톨테카(Tolteca) 문명

- AD 800년-1200년
- 수도: 오늘날의 멕시코시티 북부에 위치한 Tula
- 깃털 뱀신인 께살꼬아뜰 (Quetzalcoatl) 을 숭배 => Azteca의 주신앙으로 발전, 남부의 Maya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침
- (께살꼬아뜰, 개미 한마리의 도움으로 옥수수 발견, 옥수수 가루로 인간을 창조)
- 12세기경 치치메카족(Chichimeca)의 Tula 침공 및 정복
- 치치메카족은 수도를 오늘날의 멕시코시티인 Texcoco로 정함, 톨테카인들의 관습 및 종교를 거의 그대로 수용 => 톨테카-치치메카 문화형성
- 13세기에 Azteca 인에게 정복당함
- 께살꼬아뜰(Quetzalcoatl) 신화

아스떼까(Azteca) 제국

- 돌테까 왕국의 패망이후 멕시코 중앙고원지역에 수많은 부족들이 국가를 세움
- Azteca=> 돌테까 족의 후예, '얼굴 없는 족속', '최후의 족속'
=> 끝없는 유랑 생활 및 멸시(200여년간 방랑생활)
- 1325년 오늘날의 멕시코 시티 Texcoco호수에 있던 테노치띠틀란(Tenochtitlán) 섬에 Mexica(Azteca)족 국가 건설(선인장위에서 해를 치는 독수리 발견)
- 섬에 정착한지 50여년 후 비로소 왕국다운 모습 갖추
- 인공섬 치남빠스(Chinampas) 건설: 뛰어난 영농기술(감자, 옥수수 재배)
- 1440년 목떼수마 1세(Moctezuma I) 재위에 오름: 강력한 정복정책(Guatemala 공략), 최전성기 구가, 1468년 사망
- 삼각동맹 결성: 멕시까인(아스떼까인) + 텍스꼬꼬인 + 따꾸바인



자료출처: 본인



자료출처: 멕시코 국기



자료출처: 멕시코 국기



자료출처: 본인



자료출처: 본인



자료출처: 본인

- 태양신 숭배(자신들이 다섯번째 태양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음)
- 전쟁의 일상화: 신들의 만족과 우주의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한 산제물 끊임없이 요구 => 불멸의 신은 인간의 심장을 먹음으로써 영양을 섭취하고 우주의 질서를 유지(비가 오고 농작물이 자람)
- 인신공양은 중요한 통치수단의 하나: 공포 + 전쟁포로처치 + 영토확장 + 세금확보 (고도룩 층화된 사회유지, 사회의 무절제한 소비현상)
- 인신공양으로 감옥이 없는 사회 (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사형에 처해짐=> 참수, 태형, 제물로 사용됨)
- 1500년대=> 인구 천만 명의 대제국 건설

인신공양의 방법

1. 몸을 돌위에 놓고 칼이나 돌로 가슴을 열어 심장을 꺼내어 신에게 바침
2. 참수=> 주로 여자들의 경우
3. 검투사와 대결=> 둥근 돌에 밧줄로 묶은 후 날이 없는 칼로 방어하게 함
4. 포박한 후 화살로 처형
5. 불에다 태운 후 심장을 바침(포로의 경우)
=> 일부는 희생 후 식육함

➤ 깃털 달린 뱀 께살꼬아뜰 (Quetzalcoatl) 신화 (책 p.131)

-께살꼬아뜰의 거울(인간의 모습 깨달음)

-동쪽을 향해 떠남(제1사탕수수의 해에 귀환할 것 약속)=> 마야의 뽀뽀 부 신화와 유사(스페인인들의 신격화)

➤ 새벽 별의 신 께살꼬아뜰의 출현

➤ -1502년 목떼수마 2세(Moctezuma II): 목떼수마 1세의 증손자, 과중한 세금과 인신공양(주변부족의 원한), 점성술에 집착=> 1519년(제1사탕수수의 해) 세족 목요일(부활절 직전의 목요일)에 Hernán Cortés 멕시코 만 연안에 상륙

➤ -제 1사탕수수해가 가까워져 오던 1510년경부터 아스떼카의 수도 테노치티틀란(Tenochtitlán) 섬 주변에 이상한 징후들 나타나기 시작함

➤ “바다 위에 떠다니는 섬들에서 내린 피부가 희고,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사람들이 번쩍이는 칼과 연기를 내뿜는 무기를 지니고 있으며, 햇빛에 반짝이는 쇠붙이 옷을 입고 있어 우리의 화살로는 뚫을 수 없다” (전령의 보고)
(Azteca-청동기, 스페인-철기, Inca-석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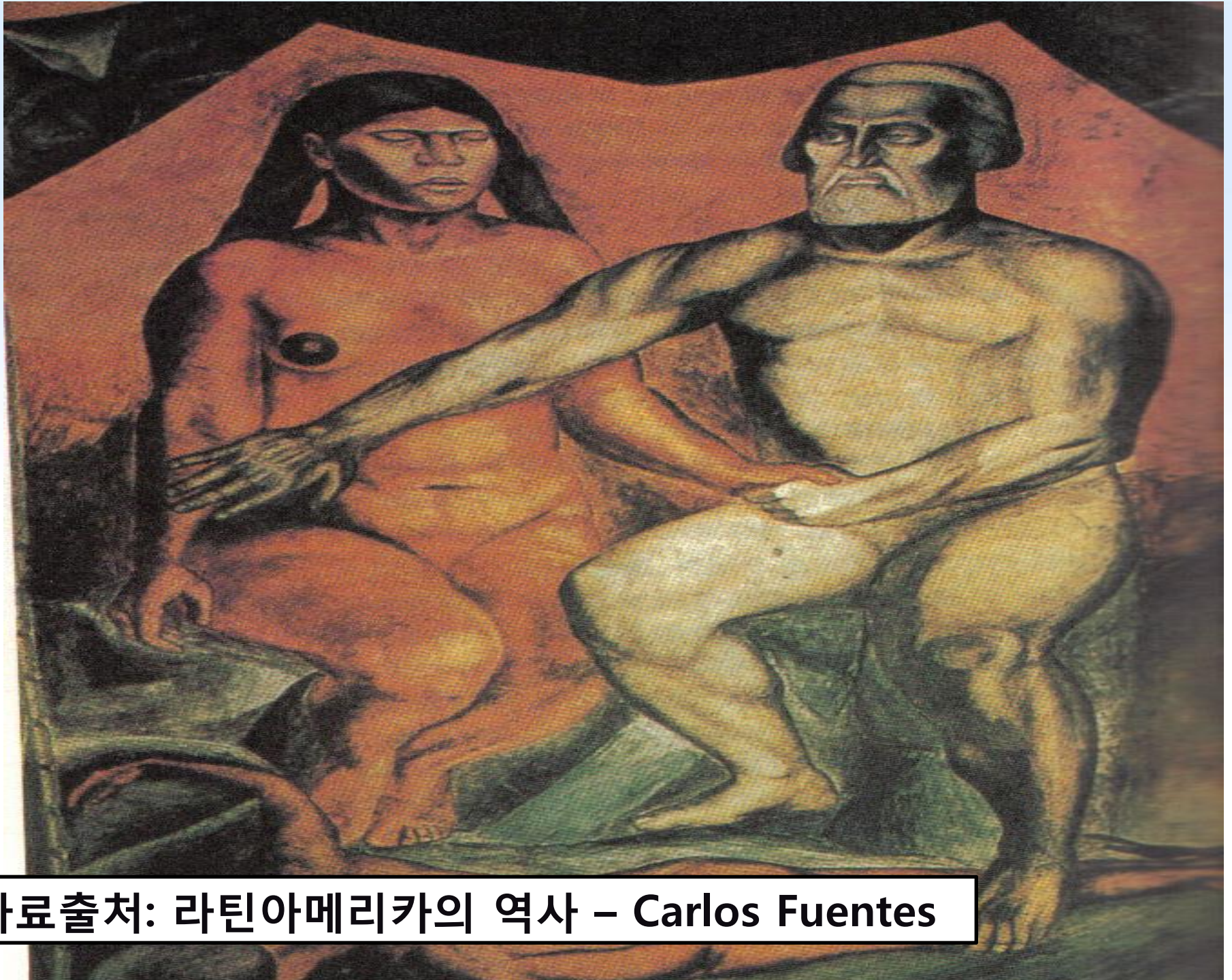
➤ “황금 눈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, 큰 입에서 침이 연신 흘러내리는 큰 개가 있으며, 무엇보다도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반은 사람 같고 반은 사슴 같은 큰 괴물 짐승으로 그 괴물이 달리면 돌이 하늘에서 땅에 쏟아지듯 대지가 진동하고 흙먼지가 자욱하다” (전령의 보고)

목떼수마의 오판

- “신들의 시간의 주기에 맞춰 동쪽으로부터 신들의 사자(스페인군)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?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 돌아와 자신의 권력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?” => 그 사이 꼬르떼스의 군대는 마야인들을 굴복시키고 북상을 계속할 수 있었음
- 목떼수마 2세, 삼각동맹국인 텍스꼬고 및 따꾸바의 지도자들과 스페인인들 환영하기로 결심

에르난 꼬르떼스(Hernán Cortés)

- 1519년 봄, 11척의 선단으로 원정대 구성, 쿠바 출발(당시 34세)
- 508명의 군인, 16마리의 말, 대포 및 총
- 멕시코만 상륙, Vera Cruz 건설
- 멕시코만 일대의 인디오 부족 제패=> 인디오 족장들, 황금과 제물 바침
- Malinche(Doña Marina)와의 만남(p. 136 그림) "Ella es mi lengua"
=> 라틴아메리카 Mestizo의 상징적 어머니
(그녀는 아스떼카는 진흙 위에 세워진 제국이라고 설파)
- 선박을 모두 파괴, 아스떼카의 수도 테노치티틀란(Tenochtitlán)으로 진군시작



자료출처: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– Carlos Fuentes

- 아스떼카 제국의 최대 적수 틀라스칼라(Tlaxcala) 정복
=> 여러 인디오 부족과 동맹체결
- 아스떼카 제국의 삼각동맹 일원인 Cholula 정복
(귀족들 환대 후 스페인군대 제거할 계획, Malinche의 제보, 출룰라 주민의 학살)
- 수적인 우세가 앞선 화기에 패배
- 목떼수마 2세의 환대(1519년 11월 8일의 만남)
- Cortés의 무혈쿠테타
 - 해변에서의 스페인군 2명의 살인사건 빌미로 쿠테타 일으킴
 - 목떼수마 2세 감금, 대리통치
 - 쿠바 총독의 군사 500명 파견, 꼬르떼스 체포지시
=> 꼬르떼스, 이들과 싸우기 위해 Vera Cruz로 이동, 이들을 역으로 자기편으로 끌어들임



자료출처: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– Carlos Fuentes

스페인 군대의 슬픔의 밤(Noche triste)

- 꼬르테스가 Vera Cruz로 떠난 후 제사의식 거행중인 인디오들 살해
- 인디오들의 반감고조, 총독의 군대와 함께 귀환한 꼬르테스, 퇴각결정
- 목떼수마 사망(스페인군에 의해?, 인디오들의 돌팔매질에 의해?)
- 아스떼까인들, 목떼수마 2세의 조카였던 구아우떼목 새로운 황제로 추대
- 1520년 5월 30일스페인군의 탈출(슬픔의 밤)
 - => 스페인군대의 절반(500여명)과 인디오 연합군 대부분이 사망

아스떼까 제국의 최후

- 최후의 황제 구아우떼목 격렬히 항전
- 천연두로 수많은 아스떼까 전사들 사망
- 1521년, 아스떼까의 수도 테노치티틀란 (Tenochtitlán) 함락
- 구아우떼목, 교수형에 처해짐
- 시인의 통곡 (p.142)
- 1978년, Azteca 제국의 유물발견 (대통령궁 바로 옆)



자료출처: 라틴아메리카의 역사 – Carlos Fuentes

새로운 탄생

- 아스떼까 제국에 항거한 인디오 부족들의 승리가 자 패배
- Mestizo의 탄생
- 최초의 혼혈인, 멕시코인 탄생(어머니 Malinche)
- 새로운 언어의 지배
 - ⇒ 스페인어: 반항과 희망, 분열과 결속의 언어
 - ⇒ 유럽인 + 아스떼까인 + 마야인 + 기타 인디오 부족 + 아프리카 흑인을 결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
 - ⇒ 언어적 통일성